로드킬 위기 서영대 마스코트 '줄냥이' 학생들이 살렸다

4년 전 대학교에 터 잡은 고양이, 학교 앞서 버스에 치여
학생·주민 등 동참 천만원 모아…3시간 대수술 끝 회복 중

광주시 북구 운암동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에서 활동하는 길고양이 '줄냥이'(5살 추정)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학생과 주민들의 모금으로 생명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줄냥이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십시일반 모인 수술비용이 1000만원을 넘겨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지난달 25일 밤 11시 50분께 줄냥이의 교통사고 소식을 알리는 '지금 줄냥이의 현재상태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줄냥이는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에서 터를 잡은 길고양이다. 줄냥이 외에도 캠퍼스에는 '서영이', '호냥이'를 포함 총 세 마리가 지내고 있다. 암컷 호냥이와 수컷 줄냥이는 남매사이로 4년 전부터 서영대 인근에서 지냈고 서영이는 5개월여 전 캠퍼스를 찾아 지금까지 캠퍼스에서 지내고 있다.

고양이들 역시 학생들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면 동네로 산책을 나갔다가도 저녁이면 어김없이 캠퍼스로 돌아오곤 했다. 이 탓에 길고양이들은 서영대 학생들과 경비아저씨는 물론 인근 서강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서영대 '마스코트'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줄냥이가 서영대 앞 횡단보도에서 미니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버스 운전사는 줄냥이 꼬리를 잡고 인도에 있는 화단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상가 주민은 줄냥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CT촬영 결과 하악골(아랫턱)은 여러 조각으로 골절됐고 왼쪽 눈까지 실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부서진 뼈로 인해 비강이 막혀 호흡까지 곤란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당장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주민은 줄냥이를 동물보호소에 신고하고 평소 줄냥이를 돌보던 서영대 경비 김장윤(67)씨에게 알렸다.

이에 김씨는 줄냥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평소 길냥이를 돌보기 위해 학생들과 만든 SNS 단체방에 소식을 알리고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병원으로 줄냥이를 옮겼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지난달 26일 장장 3시간에 걸친 수술에 돌입했다. 턱뼈는 맞춰졌지만, 왼쪽 눈은 돌이킬 수 없었다.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문제는 병원비와 수술비였다. 입원비와 CT촬영비, 수술비용까지 합하면 수백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줄냥이를 살리기 위해 모금 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서영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에브리타임에 계좌번호와 함께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에 계정(@julna_ng)도 만들고 학생들 개인 트위터 등에도 줄냥이의 사진과 상태를 알리며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 위에 앉아있는 줄냥이 사진에 헬멧을 합성한 모습. 〈김장윤씨 제공〉

평소 고양이를 애지중지 돌보던 서영대 학생들부터 인근 서강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직원, 심지어 소식을 접한 운암·용봉동 주민들도 마음을 더했다.

모금액은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다양했다. 지난 26일 하루만에 385명이 모금에 참여해 450만원이 모였다. 1일 현재까지 700여명이 모금에 동참했고 금액은 총 1100만원에 달했다.

통장에는 '줄냥아 아프지마', '줄냥아 꼭 살아', '제발 살아만 줘' 라는 응원의 문구가 넘쳐났다.

검사비와 수술비 등 783만원이 병원비로 지출됐다. 애초 병원비로 1200만원 가량 나왔지만 학생들의 사연을 들은 병원 측이 절반 가량을 깎아 준 것이다.

서영대 학생 12명과 김씨는 모금액을 투명하게 밝혀서 공개하고 입원비로 사용하고 남는다면 입양시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영대 경비 김씨는 "줄냥이의 사고 소식을 들은 뒤로 잠도 제대로 못잤다. 자식같은 아이였다"면서 "많은 이들의 응원 덕분인지 줄냥이는 처음보다 좋아진 상태고 출혈도 잦아들었고 호흡도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중인 줄냥이는 2주간의 입원이 끝나면 서영대 재학생인 김미소(호텔조리제빵학과·20)씨가 입양해 키우기로 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윤 퇴진 촉구 시국미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을 찾아 '친일매국 검찰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시국미사를 통해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연대'를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노총, 윤 정부 노동정책 비판 집회

세계노동절(5월 1일)을 맞아 광주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일 광주시청 앞에서 '2023년 세계노동절 광주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시간 개악을 밀어붙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시청에서 출발해 평화공원을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2.3㎞ 구간을 행진하기도 했다.

노조는 "현 정권이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등과 같은 친자본·반노동 발언을 해 현장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불평등·양극화 시대를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과 '해고의 위협이 없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노조 탄압 분쇄' 등의 구호와 함께 얼음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거쳐 2.2㎞ 구간을 행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중 총궐기투쟁을 열고 오는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에는 총파업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

광주 남구 빛고을테마공원에 '마당쇠' 있다

환경 정비용 '청소 로봇' 투입

광주시 남구 양과동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 '청소 로봇'이 투입됐다.

남구는 1일 "도시공원 내 노면 청소 등 환경 정비용 청소로봇인 '마당쇠'를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로봇은 흡입용 진공 청소기와 흙과 먼지를 제거하는 2개 브러쉬를 갖췄으며 공원과 이면도로 청소를 담당한다.

청소로봇은 최대 100ℓ에 달하는 쓰레기와 이물질을 수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담배꽁초, 전단지, 낙엽 등도 청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 잦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겨울철 폭설 제설작업까지 도맡아 공원 내 결빙구간 제거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5~7일과 26~28일에는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서 청소 로봇 포토존과 시승 체험이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 봄철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임산물 채취·흡연·샛길 출입 등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국립공원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주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원 경계부 임산물 채취, 흡연, 샛길 출입 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흡연행위는 1차 적발시 과태료 60만원, 출입금지 샛길 출입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야간 산행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 단속팀을 운용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